내가 생각하는 국어 순화

□ 유종호　□ 정연찬
□ 김계곤　□ 이영택
□ 정운종　□ 이강로

겨레말 되찾기와 바른 말 쓰기

유　종　호

신문 독자 투고란에서 심심치않게 발견하는 것이 외국어 사용 비판이다. 어엿한 우리말을 두고 왜 외국어를 쓰느냐는 호통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덧붙일 말도 없다. 특히 시청각 대중 매체에서 외국말 쓰는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런데 외국말이라고 지적된 것 가운데는 우리가 빌려 쓰는 외래어도 적지 않다. 문화의 교류에 따라 물어오는 외래어는 일일이 만들어 쓰는 것도 번거로워 그냥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 텔레비전이나 헬리콥터를 새삼스레 고쳐 쓰는 것도 우스울 것이다. 또 사우나는 목욕탕과 다르고 한증막과도 다르니 그대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케일이 크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하는 말은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래어 남용은 국어 순화라는 차원에 앞서 우선 취향의 문제이다.

서구에서 흘러온 외국어는 곧 외국어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공동의 한자 문화권을 이루었던 이웃 나라에서 만들어 쓴 한자말은 외국어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어임을 알지 못하고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演說이니 世帶主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쓴 말이지만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말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연인' '유부남'에 이르러서는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 우리 식으로 발음만 하면 우리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말 쓰기는 특히 신문 잡지에서 무분별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

일본 사람이 만들어 썼는지 확실치 않지만 되는 대로 한자를 맞추어 만들어 쓰는 것도 권장할 일은 못 된다. 얼마 전 사법부의 파동이 있었을 때 소장 법

관들이 대법원장을 가리켜 '사법부의 수장(首長)'이란 말을 썼다. 정치학에서 쓰는 '수장주의(首長主義)'에서 나왔고 아무래도 일본 사람의 용어일 공산이 크다. 어쨌거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쓰던 말은 아니다. 듣기에 생소할 뿐 아니라 우리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수령'이니 '두령'이니 하는 말은 들어왔지만 '수장'이란 말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저들이 만들어 쓴 일제 한자말을 빌어 쓴 것은 이제는 돌이킬 길 없는 지난 일이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까지 옛 일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점, 지적 생산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금지 해제된 작가들의 작품집이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30년대에 씌어진 작품들 속에는 근자에 별로 씌어지지 않는 우리말들이 엄청나게 많다.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나 곡식을 가리키는 '시재(時在)', 도회지를 가리키는 '대처(大處)', 병중의 건강 관리를 뜻하는 '조섭' 등은 벌써 젊은이들 사이에선 잊혀진 말이 되었다. 그러나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은은한 맛이 풍기는 일상어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겨레말 되찾기를 통한 일제 한자어의 몰아내기도 자연스럽게 시도할 만한 일이다.

눈알을 위쪽으로 치켜서 흰 자위만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뒤어 쓰다'나 상건달이란 뜻의 '뚝건달' 같은 말은 이제 완전히 잊혀진 말이 된 것 같다. 이러한 토박이말일수록 우리가 되찾아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국어 순화는 비속어 배척, 외국어 배격, 고운 말 쓰기와 같이 어휘의 수준에서 고려되는 것이 보통이다. 어휘가 순화의 중요한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말이란 본시 환경적 요소가 있어서 '그립다' 말을 하면, 정말 그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거친 말을 쓰면 순간적이나마 심성도 그만큼 거칠어지게 마련이다. 기품있는 말을 쓰는 것은 기품있는 심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무작정 고운 말 쓰기가 국어 순화의 전부가 아니다. 고운 말 쓰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말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적절한 단어를 골라 쓰고 어법에 맞게 말하고 글 쓰는 것이야 말로 언어 순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거친 말을 피해서 둘러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완곡어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이란 말이 '부조리'가 되고 '비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완곡어법은 사사로운 일에서는 서로의 체면을 존중하는 미덕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태를 호도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어 순화가 아니라 국어 훼손이나 오용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안고 있는 것이다. 곱게 쓰기보다 바르게 쓰기가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겨레말이란 어쩌 보면 신비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그야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같은 말을 써서 의사 소통을 하고 한 겨레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우리'를 벗어나가게 된다. 우리끼리의 상호 확인과 우리 아닌 사람을 확인시켜 주는 겨레말을 풍요하고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겨레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모든 일이 조그마한 것에서 비롯된다. □

(이대 교수)

국어의 개발, 그 끊임없는 노력이

鄭 然 粲

國語醇化라는 표현의 文字 그대로의 뜻은 우리 일상의 言語生活 표현에 섞여 있는 非國語的 要素를 除去하여, 국어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 감각에 맞는 그 本來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자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하나의 理想論일 듯도 하고, 또 다소간의 애국적 동기도 들어 있는, 어려운 명제인 듯하다. 우리의 現實生活은 매우 복잡하고, 多面重層的인 하나의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非國語的인 요소를 모조리 몰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實現不可能한 일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세계의 어떤 言語도 완전히 순수한 自國的 요소만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외국적 요소를 받아들여, 본래의 제 모습을 잃고, 自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民族的 자존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책도 多樣할 수밖에 없겠으나, 만약 이 문제의 提起가 정당한 것이라면, 더 좋은 결론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선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여 보는 것도 무방한 일로 생각된다.

첫째로 떠오르는 현저한 문제는 語彙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은 변화가 빠르고, 文明과 技術의 交流가 急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새로운 사물들은 그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시할 어휘가 우리들에게는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를 지시하는 이름까지를 부득이 受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문명과 기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때에 묻어 들어오는 外國語의 수용 또한 실로 부득이한 形勢일 것이다. 문명과 기술의 수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우리의 것으로 소화 變容되고 그것을 지시하는 이름까지도 우리말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니, 그 때에야 그 完全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개 번역 불가능한 言語란 없